

중국 정밀화학제품 시장 정밀조사

산자부, 정밀화학진흥회 주관 CNCIC와 협력 ... 9개 사업분야 선정

정부가 정밀화학제품, 항공우주 부품소재, 전력 기자재 등 해외 수출상품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단순한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파견으로는 해외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어려운 부품·소재 등 전문품목에 대한 <전략적 해외시장조사사업>으로 9개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략적 해외시장조사사업>은 구체적인 해외시장·바이어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관련 산업단체나 기관이 KOTRA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해외시장 조사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해외시장 조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최적의 시장 개척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문품목에 대한 국내 업계의 해외 마케팅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산업단체·기관과 KOTRA 간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밀화학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주관으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 CNCIC 등 유관기관을 이용해 중장기적인 시장 자료 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항공우주 부품소재는 프랑스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유럽 항공우주 부품소재산업 동향을 파악해 국내기업의 아웃소싱 참여를 모색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의 전력 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조사도 수행된다.

산자부는 해외시장 조사사업 결과를 2004년 해외마케팅 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성과 및 업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외마케팅 지원이 더욱 전략적·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17>